

홍진주 '신데렐라 꿈' 이뤘다



29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골프장에서 열린 LPGA 코오롱-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홍진주가 우승트로피를 들어보이고 있다. 홍진주 선수가 입은 의상은 신라시대 성덕여왕의 의복을 재현한 것.

안시현·이지영 이어 세번째

LPGA 투어 비회원 챔피언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 우승

국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대회 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에서 역대 세 번째 '신데렐라'가 탄생했다.

큰 키에 모델 못지 않은 미모를 자랑하는 홍진주(23·이동수패션)는 29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골프장(파72·6천38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했다. 2위 장정(26·기업은행)을 3타차로 따돌리는 완벽한 우승.

이 지역 출신의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슈퍼파워' 신지애(18·하이마트)는 4언더파 68타를 쳐 합계 5언더파 211타로 카린 이세르(프랑스)와 함께 공동 4위를 차지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홍진주는 이 대회 전신인 CJ나인브릿지 클래식에서 우승해 LPGA 투어 진출 티켓을 따냈던 2003년 안시현(22), 지난해 이지영(21·하이마트)에 이어 역대 세 번째 LPGA 투어 비회원 챔피언이 됐다.

홍진주는 본인이 원하던 내년엔 LPGA 투어 시즌 전 경기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

또 20만2천500달러의 우승 상금을 챙겨 프로 선수가 된 이후 가장 많은 돈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다.

31일부터 열리는 일본여자프로골프 퀴리 파이스클 응시를 위해 30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 홍진주의 미국진출은 아직 미지수다. 홍진주의 우승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이 대회 우승컵은 모두 한국선수 가 차지했으며 올해 LPGA 투어에서 한국선수들이 합작한 우승 횟수는 11차례로 늘어났다. 지난 22일 한희원(28·윌라코리아)의 혼다LPGA타일랜드 우승에 이어 한국 선수의 2연승이기도 하다.

2위 그룹을 4타차로 앞선 채 2라운드를 마쳐 우승을 예약하다시피 했던 홍진주는 장정(26·기업은행)의 맹추격을 받았지만 흔들림 없이 차분히 타수를 줄여나가 15번홀까지 6타차까지 달아났다.

드라이브샷은 어김없이 페어웨이 한 가운데를 갈랐고 아이언은 꼬박꼬박 그린에 떨어졌다. 후반 들어 샷이 다소 흔들리기는 했지만 병커에 빠진 볼이나 그린을 벗어난 볼을 모두 파로 연결했다.

장정은 16번(파5), 17번홀(파4)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막판에 힘을 냈으나 홍진주를 따라잡기에는 남은 홀이 모자랐다.

17번홀(파4) 버디로 승부에 쐬기를 박은 홍진주는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더블보기로 홀아웃했지만 우승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날 하루에만 4타를 줄인 장정은 2라운드 때 이븐파 72타에 그친 탓에 최종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박세리(29·CJ)는 버디 6개를 기록했으나 5언더파 67타를 뺏아내 합계 6언더파 210타로 3위에 오르는 뒷심을 과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단독 선두

PGA 크라이슬러챔피언십 3R

'뱅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크라이슬러챔피언십 셋째날도 선두를 지키며 우승컵에 바짝 다가갔다.

최경주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외의 웨스턴이니스트룩골프장(파71·7천295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를 번갈아 하는 등 다소 불안했지만 1언더파 70타를 쳐 중간 합계 9언더파 204타로 리타보드 맨 폭대기에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

최경주가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삼급 랭킹 30위 안에 들어 2004년 이후 2년만에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KS 2연패



29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삼성-한화전 9회말 한화의 마지막 타자 데이비스를 삼진아웃으로 잡은 삼성 마무리 오승환이 포수 진갑용을 얼싸안고 있다. /연합뉴스



끈질긴 한화 추격 뿌리치고 3-2 승...박진만 'MVP'

■ 한국시리즈 6차전

삼성이 악전고투 끝에 2년 연속 한국프로야구 정상에 올랐다.

삼성은 29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06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1, 2회 박한이의 2루타 두 방으로 초반 기선을 잡은 뒤 배영수와 오승환 등 마운드를 총 투입, 3-2로 힘겹게 승리했다.

이로써 7전 4선승제의 '가을잔치'에서 4승 1무1패로 한화를 제압한 삼성은 지난해 이어 한국시리즈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올해 한국시리즈는 사상 처음으로 3경기 연속(3~5차전) 연장 승부를 펼치는 등 매 경기 피를 흘리는 명승부를 펼쳤다.

삼성은 1회초 상대 안영명을 상대로 선두 타자 박한이가 2루타로 포문을 연 뒤, 3번 양준혁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얻었다.

이어 2사 1-2루에서 진갑용이 양준혁을 불러들여 2-0으로 앞섰다. 삼성은 2회초에도 조동찬의 적시타로 1점을 추가, 3-0으로 달아났다.

경기 초반 대거 3점을 뺏아낸 삼성은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 했다. 하지만 한화의 우승에 대한 투지는 끈질겼다.

한화는 6회말 2루타로 출루한 이병호를 이도형이 불러들여 1점을 추격하며 마지막 불씨를 살려냈다. 8회말에는 4번 김태균이 삼성 배영수로부터 1점 홈런을 뽑아 3-2까지 따라붙었다.

한화는 9회말 1사 만루의 마지막 황금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중심타선인 클리어가 내야플라이, 데이비스가 삼진으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선수(MVP)는 지난 투표에서 53표 중 36표를 차지한 박진만이 배영수(17표)를 따돌리고 선정돼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한편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팀은 1986년~1989년, 1996년~1997년을 제패한 해태(KIA의 전신)와 2003년~2004년의 현대에 이어 삼성이 세 번째다.

또 지난해 취임한 선동열 감독은 한국시리즈 우승횟수에서 김용우(10회), 김재박(4회)에 이어 김인식, 강병철(이상 2회) 감독과 공동 3위가 됐다. 감독 데뷔 이후 2년 연속 우승한 첫 감독에 올랐다.

삼성 박한이는 10안타를 몰아쳐 한국시리즈에서 개인통산 35안타, 24득점을 기록해 양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호랑이가족 한마당' 성료

KIA타이거즈가 주최한 '2006호랑이가족 한마당' 행사가 관 250여명과 선수단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사진)

참가자들은 4팀으로 나뉘어 켈러투게임, 스크림플레이 등 다채로운 레크레이션과 함께 장기자랑을 벌이는 등 흥겹고 유쾌한 한마당을 연출했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2006시즌 내내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준 KIA타이거즈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오늘부터 마무리 훈련

경남 남해서 20일간

KIA타이거즈가 3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경남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마무리훈련을 실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인트루이스 24년만에 월드시리즈 정상 탈환



메이저리그 최고 지장(智將) 토니 라루사 감독이 이끄는 내셔널 리그(NL) 챔피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1982년 이후 24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상을 탈환했다.

세인트루이스는 지난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뉴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아메리칸리그(AL) 1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우완선발 투수 제프 웨버의 호투와 상대의 결정적인 실책에 편승, 4-2로 이기고 시리즈 전적 4승1패로 미국프로야구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지난 1982년 이후 24년 만에 월드시리즈를 제패한 세인트루이스는 이로써 구단 통산 10번째 우승을 달성, 뉴욕 양키스(26회)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최다 우승 구단이 됐다.

세인트루이스의 우승으로 NL은 지난 2003년 플로리다 말린스 이후 3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되찾아왔다.

지난 1996년부터 세인트루이스 지휘봉을 잡은 라루사 감독은 1989년 오클랜드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데 이어 세인트루이스마저 정상으로 인도, 스티브 앤더슨(1976년 신시내티, 1984년 디트로이트)에 이어 양대리그에서 모두 우승한 두 번째 감독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